

강의의 내용 중 인공지능이 ‘자각 없는 수행’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부분을 공부하며, ‘자각 없는 수행을 하는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결과를 도출 해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현대 기술 혁신의 정점에 있으며, 특히 예술, 문학, 음악 등 창의적인 영역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 AI가 창의적이라는 주장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창의성이란 단순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존의 경계를 넘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AI는 창의성에 근본적으로 미치지 못 한다’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이를 “이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한 인물들의 말을 인용해서 뒷받침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겠다.

1. 창의성은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파블로 피카소는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문제는 그들이 자란 뒤에도 어떻게 예술가로 남아있을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피카소의 말은 창의성이 단순한 본능적 재능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당시 전통적 예술의 틀을 깨부수고 새로운 미술 양식인 큐비즘을 탄생시켰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이는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이룬 한계의 돌파와는 다르다. AI가 만들어낸 그림이나 음악은 기술적 완성도는 높을지라도 기존 데이터를 재조합한 결과에 불과하다. 피카소와 같은 창의적 예술가는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미학적 관점을 제시하지만, AI는 이를 모방할 뿐 혁신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AI가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창의성의 핵심은 끊임없는 질문에서 나온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창작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대리석 속에 갇혀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차가운 돌 속에서 풀려날 때까지 돌을 깎았다.” 그의 말은 예술가가 단순히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술자가 아니라 그 재료 속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탐구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AI는 이와 같은 질문의 과정을 가지지 않는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AI가 제공받은 질문과 AI 스스로가 가진 데이터의 테두리 안에서 도출된다. 반면 인간의 창의성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기존에 없던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반 고흐의 작품을 예로 들어보면, 그는 단순히 풍경을 그림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내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감정과 영혼을 담았다.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지언정, “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3. 창의성은 감정과 열정의 투영에서 비롯된다.

빈센트 반 고흐는 “나는 내 심장과 영혼을 그림에 쏟아부었고, 그러면서 미쳐갔다.”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고흐가 자신의 예술에 얼마나 열정적인 인물이었는지 보여주며, 실제로 그는 자

신의 작품에 감정과 열정을 불어넣음으로써 자신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상대에게 감동을 전달했다. 창의성의 핵심은 바로 이런 감정적 깊이와 인간적 경험의 투영에서 나온다.

AI는 감정과 의도를 가지지 못한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이는 감정 없는 계산과 알고리즘의 결과이다. 인간 예술가가 창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뇌와 희열은 단순히 결과물에 국한되지 않고, 창작 자체의 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AI가 근본적으로 모방할 수 없는 특성이다.

결론: 창의성의 본질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AI가 만들어내는 작품은 흥미롭고 유용할 수 있지만, 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창의성은 피카소가 말한 기존 틀을 깨는 노력, 미켈란젤로가 보여준 끊임없는 질문, 반 고흐의 열정처럼 한계를 뛰어넘고, 질문을 던지며, 감정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AI는 이러한 과정을 모방하거나 결과를 생성할 수는 있어도, 질문의 근원을 가지지 못한다. 지금에 현존하는 AI는 본질적이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AI가 진정한 창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하는 능력을 넘어, 특정 대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독창적 질문을 스스로 생성하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창의성의 영역에 도달하기엔 여전히 먼 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I는 인간 창의성의 대체자가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창의성은 결국 질문하는 존재의 특권이며, 이는 현재에 존재하는 AI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참고: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1ce4030551a49d1a37fcf1a5f310058>